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3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티(T)’ 익스프레스를 타네요”라고 14일 평했다.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티’(T)는 ‘탄핵’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이렇게 적었다.윤 대통령은 13일 검찰 측근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있다.